

교육공동체 나다
2019년 여름

방향성특강

미디어의 참견

참가안내

초등부 문화 바이 바이, 빙봉 5강

★ 애니메이션으로 다시 보는 나의 어린 시절

초등부 철학 생각하는 사람이 5강

★ 몸만 자라는 아이로 남지 않기 위해 세상에 던지는 질문들

중등부 대중문화 미디어의 참견 5강

★ 오감을 자극하고 뇌에 기생하며 내 삶에 참견하는 미디어 읽어내기

중등부 철학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5강

★ 멀어져 버린 나와 너,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기 위한 인문학의 목소리

중등부 인문학 입문 인문학, 세계를 보는 창 5강

★ 나다의 인문학 강좌가 처음인 청소년들을 초대합니다

고등부 문화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 헬조선의 영화들 5강

★ 당신의 가족, 친구, 이웃이 겪고 있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살기 위한 영화 감상실



교육공동체 나다 2019년 여름특강 “미디어의 참견” 기획 소개 및 진행 안내

1. 초대말씀

기술의 발전과 함께 21세기는 이미지가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인은 여러 미디어가 24시간 내내 뿜어내는 영상에 둘러싸인 채 살고 있고, 자기 때는 그러지 않았으며 책 좀 읽으라는 어른들의 잔소리도 더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어른들은 알까요?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이 아닌 책을 읽는 사람을 찾기가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만큼이나 어렵고, 돌아보면 자신들도 미디어와 사랑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는 사실요.



이런 시대에 미디어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자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채울 길 없는 욕망을 자극하기도 하고, 현실의 고통을 잊게 만드는 마약 같은 힘을 주입하기도 하며, 사람들을 착각의 늪으로 밀어 넣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직접적이고 자극적인 이 힘은 종종 우리의 사고를 무력하게 만들고 삶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설적으로 모든 미디어는 현대사회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황홀한 영상 뒤에서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회의 균열을, 더 나아가 이 균열을 교묘하게 포장하고 조종하려 드는 힘의 민낯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미디어와의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 왜 허상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 개설 강좌

[초등부 문화] 바이 바이, 빙봉 (5강)

★ 애니메이션으로 다시 보는 나의 어린 시절

△ 참가자 12~13세 △ 일시 8월 5~9일, 오후 1~3시

[초등부 철학] 생각하는 자람이 (5강)

★ 몸만 자라는 아이로 남지 않기 위해 세상에 던지는 질문들

△ 참가자 12~13세 △ 일시 7월 29일~8월 2일, 오전 10시~12시

[중등부 대중문화] 미디어의 참견 (5강)

★ 오감을 자극하고 뇌에 기생하며 내 삶에 참견하는 미디어 읽어내기

△ 참가자 14~16세 △ 일시 7월 29일~8월 2일, 오후 3시 30분~5시 30분

[중등부 철학]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5강)

- ★ 멀어져 버린 나와 너,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기 위한 인문학의 목소리
- △ 참가자 14~16세 △ 일시 8월 5~9일, 오전 10~12시

[중고등부 인문학 입문] 인문학, 세계를 보는 창 (5강)

- ★ 나다의 인문학 강좌가 처음인 청소년들을 초대합니다
- △ 참가자 14~19세 △ 일시 7월 29일~8월 2일, 오후 1~3시

[고등부 영화]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 헬조선의 영화들 (5강)

- ★ 당신의 가족, 친구, 이웃이 겪고 있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살기 위한 영화감상실
- △ 참가자 17~19세 △ 일시 8월 5~9일, 오후 3시 30분~5시 30분

3. 강의 시간표

1주차(7/29~8/2)	7/29	7/30	7/31	8/1	8/2
오전 10:00~12:00	초등부 철학 “생각하는 사람이”				
오후 1:00~3:00	중고등부 인문학 입문 “인문학, 세계를 보는 창”				
오후 3:30~5:30	중등부 대중문화 “미디어의 참견”				
2주차(8/5~9)	8/5	8/6	8/7	8/8	8/9
오전 10:00~12:00	중등부 철학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오후 1:00~3:00	초등부 문화 “바이 바이, 빙봉”				
오후 3:30~5:30	고등부 영화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 헬조선의 영화들”				

4. 참가 신청

- 개강 : 2019년 7월 29일, 8월 5일
- 접수 : 2019년 6월 29일부터 선착순 마감
- 장소 : 전교조 서울지부 2층(3호선 독립문역 도보 5분, 서울시 종로구 교복동 11-1)
- 정원 : 모둠별 10명
- 강좌후원금 : 강좌 1종 10만원(회원 20% 할인, 납부예외 문의)
- 계좌 : 국민은행 762302-04-169524 임성민(교육공동체 나다)
- 문의/신청 : <http://nada.jinbo.net> 방학특강 게시판, 02-324-0148, 010-7133-2305
- 후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교육공동체 나다 2019년 여름특강 “미디어의 참견” 강좌별 소개

문화 초등	바이 바이, 빙봉(5강)
	★ 애니메이션으로 다시 보는 나의 어린 시절
참가자	12~13세 초등부 청소년
일시	2019년 8월 5~9일, 오후 1~3시
참고	각 강좌 제목에 적힌 애니메이션을 보고 와주세요.

어린 시절 우리를 즐겁게 해주었던 이야기들을 떠올려보면 이 속에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가득해요. 공주도 있고, 나는 고양이 버스도 있고, 살아 움직이는 장난감도 있지요. 어린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 속에는 이렇게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자주 나와요. 지금의 우리는 상상과 현실을 꽤나 잘 구별하고, 상상의 세계가 조금은 유치하게 여겨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때의 우리는 이 이야기들이 화면 속에만 존재한다고 느끼지는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빙봉과 함께 모험을 떠나보기도 했고, 장난감들과 함께 놀 때면 이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살아 움직이는 나의 친구들 같았으니까요.

여기, 그랬던 우리의 어린 시절을 담고 있는 네 편의 애니메이션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번 여름에는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리고 자라고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만들어 봐요.

.....

1강_ <겨울왕국> : 가장 공주다운 공주를 찾아서

어린 시절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야기들은 ‘옛날 옛적에’로 시작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로 끝나곤 했어요. 공주와 왕자, 운명적 사랑과 마법이 가득했던 그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에 등장하는 공주님들은 하나같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죠. 하나 단점이 있다면, 왕자님이 구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런데 여기에는

마법을 쓰고 왕자의 도움을 받지 않는 공주, 종이봉지만 입고, 용과 싸워 왕자를 구해내는 공주, 밤이 되면 녹색 괴물이 되는 공주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 가장 공주다운 공주는 누구인가요?

2강_ <미니언즈> : 못된 짓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바나나’를 외치며 종알대는 미니언들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읍니다. ‘너무 귀여워!’ 겉보기에는 귀엽고 또 귀여운 이 미니언들이 사실은 공룡의 시대부터 최고의 악당을 찾아다니며 보스로 모셔온 악당 중의 악당이라는 걸 사람들은 자꾸 까먹나 봐요. 그래서인지 누군가는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가 저렇게 무조건 악당을 따라도 되는 거냐고 화를 내기도 해요. 하지만 미니언도 어린이도 억울할 뿐이에요. 사실 우리는 원래 악당(?)이었고, 언제나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어린이야말로 본 적이 없는 걸요!

3강_ <토이 스토리> : 너 없이는 못 살던 그때

어른들 눈에 장난감은 그저 천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잡다한 물건일 뿐이겠지만, 우리에게 장난감은 그저 놀잇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나와 함께 모험을 떠나고 소꿉놀이를 하는 놀이 짝꿍들이기도 했고, 무얼 하든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는 다정한 친구이기도 했어요. 어디를 가든 함께 하고, 아무리 어둠이 무서운 밤에도 내 토끼 인형을 품에 안으면 좋은 꿈을 꾸며 잠들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도 그때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던 그들을 기억하고 있나요?

4강_ <이웃집 토토로> : 우리는 토토로와 만날 수 있을까?

시골의 낡은 집으로 이사 온 메이와 사츠키 자매를 맞이한 것은 까맣고 동글동글한 빈집의 요정들이었어요. 놀란 자매에게 이웃집 할머니는 이야기합니다. “나도 어릴 적에는 그것들을 봤단다.” 이 요정도, 나무 아래 사는 토토로도, 하늘을 나는 고양이 버스도 어른들에게는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건 아마 어린 메이에게는 꼭 필요했던 토토로가 어른인 아빠에게는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5강_ 바이 바이, 빙봉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의 주인공 라일리에게는 어릴 적 함께 놀던 친구가 있어요. 몸은 분홍색 솜사탕인데 코끼리와 돌고래, 고양이가 섞인 모습에 눈물 대신 사탕이 나오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빙봉이랍니다. 어린 시절 소녀의 곁에서 어떤 모험도, 어떤 장난도 함께 했던 그런 빙봉은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오직 라일리의 눈에만 보이는 상상 속의 친구랍니다. 하지만 라일리는 자라서 어린이의 세계를 떠나게 되고, 빙봉은 그렇게 기억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란다는 것은 환상의 세계, 상상 친구 빙봉과 작별인사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과연 어떤 걸 믿지 않고, 어떤 걸 믿게 되는 일까요.■

철학 초등

생각하는 자람이(5강)

★ 몸만 자라는 아이로 남지 않기 위해 세상에 던지는 질문들

참가자	12~13세 초등부 청소년
일시	2019년 7월 29일~8월 2일, 오전 10시~12시

“너는 너무 생각이 많아” 12살 자람이가 주변 친구들에게서 종종 듣는 핀잔입니다. 매사 질문도 많고, 할 말도 많은 이 소녀는 반 친구들 사이에서는 별종으로 통합니다. 세상만사가 도대체 왜 이렇게 생겨먹은 것인지 사사건건 따지고 들이받는 이 열혈 소녀가 다른 친구들이 보기에는 영 이상해 보였던 거죠.

<생각하는 자람이>는 아이들의 생활 속에서 건져 올린 생생한 철학 이야기입니다. 자람이 또래의 초등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철학의 주제들을 접해볼 수 있도록 고민해서 쓴 소설을 만화로 다시 구성했어요.

아무리 만화라고 한들, 어른들에게도 어렵고 지겨운 철학을 과연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요? 철학이 어렵게만 여겨지는 것은 아이들이(어른들 역시!) 접해 온 ‘철학’이라는 것이 철학의 탈을 쓴 또 다른 암기, 혹은 삶과 완전히 동떨어진 죽어있는 고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철학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하고 판단하고 반성하는 능력이 있다면 누구라도, 너무나 당연하게 ‘철학’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과 연관된 현실적인 것으로 고민할 수 있을 때, 추상적인 것이 쉽고 재미있게 설명될 때 아이들은 개념에 흥미롭게 접근합니다. 아이들을 이야기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여러 장치들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암기로서의 혹은 자신의 삶과 동떨어진 철학이 아닌 자신의 삶 속에서의 철학을 고민할 수 있게 됩니다.

자람이가 살면서 보고 듣고 겪는 일들에 속에서 건져 올린 알쏭달쏭한 질문들은 대한민국의 다른 평범한 초등학생들 역시 충분히 공감할 만한 흔한 경험담들 가운데 있습니다. 키와 몸무게는 밥만 먹어도 알아서 자라지만, 마음의 키는 '나를 둘러싼 세상은 어떤 곳인가?'를 직접 맛부딪쳐 묻고, 답을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만 자라날 수 있습니다. 몸만 자라는 아이로 남지 않기 위한 열혈 초딩의 머리 아픈 일상 속으로 함께 따라가 보실래요?

.....

1강_ 나를 잃어버린 날 : 내가 알고 있는 나, 그게 정말 나일까?

어느 날 학교 갔다 집에 돌아오니 가족 중에 아무도 자람이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나야, 나! ‘자람이’라고!” 아빠는 황당하단 표정으로 말합니다. “자람이란 이름이 너 하나뿐이겠니?” 이쯤 되면 자람이조차 스스로가 의심스러운 걸요?

생각하는 자람이 첫 번째 이야기는 ‘나’, 곧 주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 사회의 초등학교5, 6학년 정도면 자기 삶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자각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외적인 조건(부모나 학교의 강압) 때문에 오히려 그렇지 못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를 자기화하는 실천으로서의 사고, 그 주인으로서의 주체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2강_ 옛 친구 새 친구 : 기억나지 않는 그 녀석, 옛 친구일까 새 친구일까?

옛날에 시골 외가댁에 살았던 자람이. 7년 만에 그곳에 다시 갔더니, 글썽 찜 보는 시커먼 녀석이 반갑다고 영기지 뭐예요. 옛날에 나와 목욕까지 했던 사이라나? 그런데 나 빼고 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뭐예요!! 어머머, 웬일이니!!

두 번째 시간에서 아이들은 “기억나지 않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있다면 그건 내가 사는 시간에 속해 있는 것일까? 아닐까?”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토론의 과정을 통해 정체성과 변화에 대한 이해에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3강_ 진실은 어느 곳에 : 왜 서로의 진실이 어긋나게 되는 걸까?

애는 재를 좋아하고, 재는 개를 좋아하고, 개는 또 애를 좋아한다나? 근데 오해가 생겨 재판 싸움이 벌어졌네요. 가만, 왜 모두가 말하는 싸움의 이유가 다른 거죠? 아아, 사랑의 진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자람이네 반 두 친구의 추리소설 뺨칠 정도로 엇갈리고 꼬여버린 연애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두의 진술을 종합하던 자람이는 결국에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를 상황에 빠져버리고 말죠. 이 시간은 '진실과 거짓말'이라는 소재를 통해 객관과 주관에 대한 이해, 진실의 조건에 대한 이해에 다가서기 위해 짜였습니다.

4강_ 진짜 세상, 가짜 세상 : 게임 속의 나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

자람이는 게임에 죽고 못 사는 남자애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고수 될 때까지 레벨 올리고, 아이템 모으고,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람? 어차피 실제로는 다 쓸모도 없는 것들

인데! 수업이 모두 끝나자마자, 오늘도 우리 반 남자애들은 피시방을 향해 달려갑니다. 현실보다 더 끝내주는 가짜 세상을 향해서!

청소년들이 빠져 사는 드라마, 영화, 만화, 게임 등의 창작물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가상 세계입니다. 가짜 세상이라고 해서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실제로 희귀한 게임 아이템은 게임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이버 머니가 아닌 진짜 돈으로 제법 비싼 값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가상은 모니터 안과 바깥을 넘나들며 현실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가상의 체계들이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현실과 어떤 연관을 맺고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시간입니다.

5강_ 좋은 아이 착한 아이 : 착하게 살 것인가 독하게 살 것인가?

세희는 엄청 착한 아이인데 인기가 없어요. 연주는 엄청 이기적인데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짜증나는 상황을 겪었지 뭐예요! 도대체 왜 그런 거죠? 착하게 살 것인가, 독하게 살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어릴 때 보통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때리지 마라.”, “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좋은 사람이 되라, 착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독하게 남에게 뒤지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것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다섯번째 시간은 아이들이 겪은 이 혼란을 통해서 삶을 대하는 자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시간입니다.■

대중문화 중등

미디어의 참견(5강)

★ 오감을 자극하고 뇌에 기생하며 내 삶에 참견하는 미디어 읽어내기

참가자	14~16세 중등부 청소년
일시	2019년 7월 29일~8월 2일, 오후 3시 30분~5시 30분

기술의 발전과 함께 21세기는 이미지가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인은 여러 미디어가 24시간 내내 뿜어내는 영상에 둘러싸인 채 살고 있고, 자기 때는 그러지 않았다며 책 좀 읽으라는 어른들의 잔소리도 더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어른들은 알까요?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이 아닌 책을 읽는 사람을 찾기가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만큼이나 어렵고, 돌아보면 자신들도 미디어와 사랑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는 사실ைய요.

이런 시대에 미디어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자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채울 길 없는 욕망을 자극하기도 하고, 현실의 고통을 잊게 만드는 마약 같은 힘을 주입하기도 하며, 사람들을 착각의 늪으로 밀어 넣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직접적이고 자극적인 이 힘은 종종 우리의 사고를 무력하게 만들고 삶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설적으로 모든 미디어는 현대사회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황홀한 영상 뒤에서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회의 균열을, 더 나아가 이 균열을 교묘하게 포장하고 조종하려 드는 힘의 민낯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미디어와의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 왜 허상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1강_ <슈퍼맨이 돌아왔다> : 관찰예능의 진실

1998년 개봉한 영화 <트루먼 쇼>에서는 전 세계 시청자들이 평범한 직장인 트루먼의 일생을 훑어봅니다. 20여년이 흐른 지금, 영화 속 이야기는 관찰예능이란 이름으로 재현되었고, 어떤 이는 이런 현실을 영화에 빗대 관음증이라는 수위 높은 표현으로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관찰예능이 유행하는 이유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관찰예능을 통해 채우고 싶은 욕구는 이보다 훨씬 다양하고, 그 욕구는 애당초 조작이 가미된 관찰예능보다 훨씬 많은 조작이 가해진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강_ <SKY 캐슬> : 교육은 욕망을 먹고 자란다

드라마 <SKY 캐슬>은 한국교육의 현실을 긴장감 있게 풀어낸 수작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드라마를 통해 한국교육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고, 서울시 교육감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드라마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한국교육의 변화는 아주 오래전부터 부모와 교사, 학생 가리지 않고 모두의 절실한 바람이었습니다. 교육의 현실을 폭로한 드라마 역시 <SKY 캐슬>이 처음이 아니며, 지금 반응도 이미 오래전 다른 드라마를 통해 나왔던 반응의 반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교육은, 학교는 수많은 사람의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지금처럼 시간이 흐른 뒤 비슷한 내용에 비슷한 탄식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변하지 않는 현실에 좌절하지 않기 위해 한국교육이 변하지 않는 '진짜' 이유를 드라마 안에서 찾아내야만 합니다.

3강_ <프로듀스 101> : 월픽의 사회학

한때 오디션 형식의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듀스101 시리즈는 오디션 형식이 그 기세를 잃은 지금도 유독 엄청난 반응을 끌어내고 있는 몇 안 되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 봐도 아니, 현실에서도 사람들이 각자의 월픽을 이야기하며 꼭 투표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어떤 이는 프로듀스 101 시리즈를 두고 악마의 편집을 예로 들며 부당하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훨씬 많은 시청자는 소녀·소년들의 노력에 열광하며 그들에게 성공하고 싶으면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만 잊지 말아 주세요. 노력하는 수많은 소녀·소녀 사이에는, 환호하는 이보다 더 많은 좌절하는 이들 뒤에는, 이 프로그램의 성공에 기뻐하며 우리의 삶 역시 조금씩 눈물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하는 부조리한 힘이 존재한다는 것ですよ.

4강_ <연애의 참견> : 연애하고 싶은 이들에게 필요한 뻔하지 않은 지침서

<연애의 참견>은 한 때 인기를 끌었던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의 10~20대 버전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여러 사연을 보노라면 연애가 이렇게 힘든 것인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연애가 방송에서처럼 극단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의 연애는 밀고 당기다가, 지지고 뉘다가, 만나고 헤어지다가 설레면서도 불안하고, 황홀하면서도 우울해지는 힘든 감정노동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연애란 아이러니하게도 황홀

한 로맨틱 코미디보다는 욕하며 보게 되는 <연애의 참견>에 훨씬 가까운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연애를 더 잘할 수 있을까요? 기가 막히고 코도 막히는 황당한 연애스토리들 안에서 그 답을 함께 찾아봅니다.

5강_ <마이 리틀 텔레비전> : 개인이 아닌 개인들의 방송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직접 방송을 하고 시청자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영향력은 이제 거대방송국을 위협할 정도로 커졌고, 역으로 방송국이 개인방송의 포맷을 따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나 아프리카TV만 보더라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소재들로 시청자를 매료시키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수많은 개인방송의 인기와 다양성의 이면에는 사람들의 욕망이 숨어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욕망을 만들어낸 것은 사람들이 발 딛고 서 있는 이 사회이기에, 결국 그 욕망의 뿌리도 함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은 어떤 개인방송을 좋아하나요,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욕망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철학

중등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5강)

★ 멀어져 버린 나와 너,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기 위한 인문학의 목소리

참가자	14~16세 중등부 청소년
일시	2019년 8월 5~9일, 오전 10~12시

친구 사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새 학년 교실은 짝과 말 트기부터 두근댁니다. 하나둘씩 무리 지어 가는 급우들을 보며 나 혼자만 외톨이로 남기라도 할까 봐 두 눈알은 이리저리 구릅니다. 해마다 치르는 이 의식이 “전쟁 같다…”는 탄식마저 들립니다. 차라리 방구석에 혼자 처박히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영화 <캐스트 어웨이>의 현대판 로빈슨 크루소인 척(톰 행크스)은 외로움에 떨다 배구공을 “윌슨”이라 부르고, 그 공이 바닷물에 쓸려가 버리자 서럽게 읊니다. 정말 외딴 섬에 표류해 혼자 수십 년을 살아야 한다면, 과연 우리는 미쳐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현대사회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현대인을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커다란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일그러진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거나 서로를 구속하고 억압합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관계 맺음이 즐거움이 아니라 삶을 옥죄는 쇠사슬이 되어버렸을까요, 포기하고 싶을 만큼 두렵게 된 것일까요. 많은 것이 얽혀 복잡하게 꼬인 그 실타래를 조금씩 풀 수 있다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 힘을 찾아내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의 관계도 조금은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표류하는 우리의 관계는 어떤 바람을 타고 정착지를 찾을 수 있을지…. 사람들 사이에 있는 섬으로의 초대장을 여러분께 띄웁니다. 인문학이라는 미풍, 혹은 폭풍에 실어서.

.....

1강_ 토닥토닥 고민상담소 : 당신을 괴롭히는 관계는 무엇입니까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고, 종종 우리는 그 섬을 발견합니다. 다다를 수 없을 것처럼 아득해서 눈물이 나도 괜찮아요. 서로가 그 등을 쓸어줄 테니까요. 더군다나 그렇게 섬 따위는 없다고 외면해버리지 않는 용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래, 우리 괜찮지 않을까요.

2강_ 외계인이어도 괜찮아 :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힘

세상에는 정상적인 사람과 비정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비정상의 크기만큼 다른 이에게 외면받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기준은 도대체 누가 왜 만든 것일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아니냐고요? 글썄요, 혹시 그 이면에 다른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3강_ 내가 너보다 더 세거든 : 무한경쟁에서 살아남는 기동찬 방법

룰. 1> 반경 10km의 무인도에서 기관총, 단검, 낫 등 각자의 무기를 가지고 서로를 죽여야 함. 2> 목에 장착된 목걸이를 통해 중앙통제소에서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되며, 억지로 풀려고 하거나 수상한 짓을 하면 목걸이는 자동폭발. 3> 시간이 지날수록 제한구역을 늘리며 제한구역에 남아있을 경우에도 목걸이는 자동폭발. 4> 제한 시간은 3일, 오직 한 사람만이 집에 돌아갈 수 있으며, 만약 3일이 지난 후에도 우승자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전원 사살.

4강_ 내 곁에 있어 줄 건가요 : 사랑과 애착이라는 DNA

사람의 관계를 맺는 방식은 과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어찌죠.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현재가 과거에서 이어지듯 현재를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우리에게겐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져 있을까요.

5강_ 사람들 사이에 꽃이 필 때 : 우리가 같은 편이 될 수 있다면

사람들은 쉽게 서로에게 분노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분노의 대상이 아닐뿐더러, 정작 분노해야 할 대상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서로의 사이에 놓인 섬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각자 앞에 있는 사람을 바라봐주세요. 이제 우리는 같은 편이 될 수 있습니다.■

<h1>입문</h1> <h2>중고등부</h2>	<p>인문학, 세계를 보는 창(5강)</p> <p>★ 나다의 인문학 강좌가 처음인 분들을 초대합니다</p>
참가자	14~19세 중고등부 청소년
일시	2019년 7월 29일~8월 2일, 오후 1시~3시
특이사항	중등부와 고등부 청소년 모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10대 중후반의 청소년들이 공감할 화제로 접근하므로 나이차나 난이도 등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인문학은 영어로 ‘humanities’라고 쓰는데 이 단어는 라틴어의 ‘humanitas(인간다움)’에서 온 말입니다. ‘인간다움’에 대한 학문, 그것이 인문학에 대한 다소 투박하긴 하지만 적절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다는 것은 ‘인간=인간’이라는 동일률을 벗어나야만 가능합니다. 자신을 대상화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문학적 소양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만 몰라본 게 아니라 물이라는 물질이 가지는 속성도 이해하지 못해서 죽음을 맞은 나르시스처럼 자신을 타자화할 수 없는 사람은 나 아닌 다른 대상들 역시 제대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대상과 대상에 대한 생각은 엄밀히 말하면 절대로 일치할 수가 없으며 끊임없이 그 거리를 좁혀가는 과정이 사고의 깊이를 더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거리를 좁혀나가기 이전에 그 거리를 의식하는 것, 즉 ‘거리두기’가 앞서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문학적 사고는 나로부터 대상으로부터 세계로부터의 ‘거리두기’의 연속입니다. 인문학적 사고가 어떤 공부든 기본이 되어야하는 이유는 세계에 대한 기존의 판단에 대해 끊임없이 거리를 두는 태도 없이는 학문적인 성취와 발전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공부에, 특히 제도 교육을 통해 배우는 공부에 ‘거리두기’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인문학적 사고가 실종된 공부의 과정은 공부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다에서 인문학 강좌를 처음 접한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인문학적으로 세상을 낯설게 바라보는 연습인 셈입니다. 그 연습의 결과가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강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싸움의 흔적이 강좌를 마친 자리와 강좌에 참가한 모두의 마음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으면 합니다.



1강_ 은유, 거리두기, 그리고 인문학

아이들이 문학을 싫어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눈을 간지럽게 만드는 화려한 영상은 굳이 활자를 통해 이미지를 상상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버렸습니다. 딱 짜인 아이들의 일과는 문학을 읽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조차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문학을 읽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인 문학의 언어를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문학의 언어는 '은유'라는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글자를 모르는 아이에게 문학책을 던져 준다는 것은 외국어를 모르는 아이에게 번역을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왜 우리 사회는 문학의 가나다를 가르치지 않는 사회가 되었을까요? 혹 그 언어로 읽을 수 있는 무언가를 숨기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2강_ 우리는 왜 꿈꾸지 않는가? : 인문학적 상상력을 위하여

꼬마 적에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꿈꾸었습니다. 때로는 비현실적이라고 할지라도 온갖 멋지게 보이는 것들은 모두 꿈꾸었지요. 그러나 그런 꿈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씩 하나씩 기억 속에조차 지워져 갑니다. 그리고 철이 들게 되면 좀 더 현실적인 꿈들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 맞춰진 꿈, 누군가에게 강제된 꿈도 꿈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유를 꿈꾸지 않습니다. 자유는, 자유를 향한 열망은 때로 우리를 심각하게 자유롭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조직과 구속을 꿈꾸며, 평등을 멸시하고 자유롭지 않기를 꿈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꿀 자유도 잃어버립니다. 어쩌면 지금은 잃어버린 꿈의 마지막 조각을 인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만나봅니다.

3강_ 대중문화, 가린 것을 벗기고 숨긴 것을 드러내다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대중문화를 제한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일입니다. 대중문화가 문화 일반의 영역만큼 (어떤 의미로는 그 이상으로) 넓어진 지금 그것을 얼마나 어떻게 제한한다는 것인지 애매하기도 하지만, 사실 제한의 근거도 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권위를 통한 강제적인 단절은 반감(反感)까지 더해진 욕망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조심스런 접근과 건강한 거리두기를 이끌어내는 것이며 그를 통해 대중문화의 전혀 새로운 재미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대중문화는 우리의 삶을 거울처럼 비춰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교재일지도 모릅니다.

4강_ 광고, 자본주의의 전도사

우리는 수많은 광고를 접하고 살지만 광고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지 구체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비싼 돈을 들여 최고의 스타를 섭외해서 광고를 제작하고 온갖 미디어를 통해 노출시키는 데는 분명히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이겠죠. 지금도 광고는 알듯 모를 듯 애매모호한 이미지와 문구로 소비자들의 마음에 소비의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왜 주부들은 사지도 못할 고급 냉장고에 마음을 빼앗기는지, 왜 아이들은 아무 쓸모도 없는 게임 아이템에 눈을 빼앗기는지, 그 비밀을 모른다면 우리는 영원히 자본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5강_ 이상한 나라의 네오, 매트릭스에서 길을 잃다

“빨간 약 줄까, 파란 약 줄까?” 좀 으스스하지만 옛날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SF 영화의 대사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은 또 아닙니다. 당신의 의식이 깨어있다면, 언젠가 한번쯤은 모비어스가 나타나 속삭였을 법한 물음... 여러분은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이 진짜라고 믿으세요? 혹 진짜가 아니라면 진짜 현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매트릭스>는 미래 사회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가상이라는 적나라한 메시지입니다.■

<h1>영화</h1> <h2>고등</h2>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 헬조선의 영화들(5강)
	★ 당신의 가족, 친구, 이웃이 겪고 있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살기 위한 영화감상실
참가자	17~19세 고등부 청소년
일시	2019년 8월 5~9일, 오후 3시 30분~5시 30분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지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에 고통이 스며들어 나날이 우울한 사람들이 버둥거리며 살아가는 나라, ‘헬조선’이라는 표현은 국가에 대한 조롱을 넘어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비극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르기 이전부터 우리가 일상적으로 머무는 공간을 지옥처럼 그려낸 표현들은 늘 존재해 왔습니다. 학교가 공포 영화의 단골 소재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는 경험인 학교는 모두가 공감할 만한 공포를 이미 충분히 지니고 있는 공간입니다.

21세기 헬조선에서도 일상의 장소들이 어떻게 지옥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영화들은 계속해서, 아니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학교는 물론이고 가족, 주거, 회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모든 곳이 다 공포의 공간으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헬조선에서 살아가기 위해, 헬조선에서 벗어나기 위해, 영화가 다른 일상의 곳곳을 되짚어보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Drag me to hell!

.....

1강_ <경성학교> : “이 지긋지긋한 조선을 벗어나고 싶어요!”

시곱바늘이 가리키는 곳에서만 존재해야 하는 우리는 마치 거대한 기계의 부품처럼 서로에게 말이 없습니다. 이 모든 고난의 출발은 어느 학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 헬조선의 기원을 찾아서...

2강_ <기생충> : “당신은 바퀴벌레야. 불빛이 켜지면 숨어버리는...”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는 너무 많은 벌레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레니까 벌레 취급을 받게 되고 벌레 취급을 받으니 더 이상 인간적일 이유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급식중인 당신은 무슨 계획이나 있나요?

3강_ <한공주> : “전 잘못된 게 없는데요.”

피해자는 영원히 피해받고 살아야 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사과받고 위로받아야 하지만 오히려 더한 폭력에 내몰려야 하는 소녀가 있습니다. 모두가 외면하는 가엾은 그 소녀에게, 당신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나요?

4강_ <오피스> : “내가 죽으려고 일하는 건지 살려고 일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늘 사표를 써서 양복 안주머니에 품고 다닌다는 회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번도 사표를 꺼내어 호기롭게 직장 상사에게 던지고 회사를 뛰쳐나올 용기를 낼 수 없었습니다. 지옥 같은 직장 생활, 그러나 그 지옥에 매달리는 아귀들, 피할 수도 가질 수도 없는….

5강_ <소공녀> : “집은 없어도, 생각과 취향은 있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최소한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살기 위해 최소한의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당신에게는 있나요? 월세 집 대신 담배와 위스키를 선택하고 내 집에 얹혀살려는 친구가 있다면 당신은 뼈 때리는 충고를 날릴 수 있을까요?■

■교육공동체 나다 2019년 여름특강 소개 마침■